

##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황성우<sup>1</sup>, 차현수<sup>2\*</sup>

<sup>1</sup>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세한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Sung-Woo Hwang<sup>1</sup>, Hyun-Su Cha<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취업 준비 행동 등을 조사하고,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라남도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208명의 간호 대학생으로부터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준비 행동 평균 점수는  $2.74 \pm 0.70$  (범위: 1-5) 이었다.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은 각각 취업 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 준비 행동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 전문직관, 일반적 특성 중 성적, 취업 준비 기간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취업 준비 행동에 관해 21.5%의 설명력을 보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호할수록 취업 준비 행동을 더 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취약한 학생들을 선별한 후, 간호 전문직관, 성적 등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취업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취업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well as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208 nursing students in their junior and senior years at two universities in Jeollanam-do and Gyeonggi-do, from November 1, 2018 to December 20, 2018.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2.74 \pm 0.70$  (range:1-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aningful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career preparation period). These factors explained 21.5% of the variance. Improvement of the above meaningful variables allowed bette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among students with weak meaningful variables, improvement of the above meaningful variables can improve job preparing behavior. In order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career prepar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s meaningful variables.

**Key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본 논문은 2020년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u Cha(Sehan Univ.)

email: cha-hyn-su@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3, 2020

Revised March 30, 2020

Accepted May 8, 2020

Published May 31, 2020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간호학과를 졸업한 미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간호학과 졸업자 중 미취업자수는 2015년 1,419명에서 2017년 1,503명으로 4년 사이 5.9%가 증가되었다[1].

간호학과 졸업자의 미취업자 발생원인은 공급측, 수요측, 공급-수요 연계원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간호학과에서의 공급측 원인은 대졸 취업희망자가 일시에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발생하는 극심한 노동 공급 압박(labor supply pressure)과 대졸 취업희망자가 일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2]. 간호학과 졸업자의 미취업은 간호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의 증원으로 간호학과 졸업생이 2015년 8,997명에서 2017년 9,643명으로 증가하여[1], 간호학과를 졸업한 취업희망자의 공급은 해마다 증가했으나, 간호학과를 졸업한 취업희망자의 일자리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취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서, 혹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근속하지 못하고 조기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2009년 35개 종합병원의 간호사의 이직률은 15.8%로 타 보건복지종사자의 이직률 2.2%보다 무려 7배나 높았다[3]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부족과 취업준비행동 부족은 간호사들이 타 보건복지종사자들에 비해 첫 직장에서 낮은 업무 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률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4-6].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의 용이성,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유만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기도 전에 어렵고 많은 양의 전공공부,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7,8].

전공선택동기란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원인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흥미, 적성, 장래직업, 재능),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취업전망 등을 고려하였는지 혹은 주변의 권유, 성적,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였는지를 의미한다[9]. 잘못된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면 대학생활에 부적응이 초래되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졸업 후 전공과 불일치된 직업을 갖거나 직업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유발시킨다. 이는 업무 능률 저하와 잦은 이직을 하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10]. 전공선택동기 가운데 개인적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1].

전공만족도는 전공 분야 선택 후 전공 분야 경험에 대한 평가로 내려지는 감정적 반응을 말한다[12].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택한 직업에서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12]. Veenhoven [13]은 전공만족도를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감정적 측면은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인지적 측면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한 간호사 자질을 갖추려면 전공만족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5].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신념, 관념, 인상의 총합으로 정의된다[16].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관념과 그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인 관념과 간호사의 간호행위 과정[17]이며, 간호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이다[18].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겨, 간호에 대한 긍정적 금지와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행동들은 달라질 수 있다[20].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1].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9].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 행동을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22].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채용 정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채용 정보로 직업을 탐색하기에 다양한 진로 결정이 어렵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로만 취업하려는 쏠림 현상을 보인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 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은 첫 직장에서 타 보건복지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률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4-6].

우리나라 간호학과는 타 과에 비해 졸업 후 취업률이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졸업 후 미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 추세이며, 취업자조차도 초기 이직률이 여전히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대학생들도 본인이 지닌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대상자를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 들어 간호학과 학생도 취업준비행동을 강화시켜야 하고, 취업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23,24]를 근거로 고학년인 3, 4학년 재학생이 연구대상자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취업률이 저조한 항공대학생, 체육학과생, 미용학과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간호대학생도 취업준비행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학 연구에서도 몇몇 취업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는 간호대학생의 여러 변수인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8], 배경변인, 진로계획, 진로탐색, 경력개발[25],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21],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26],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긍정심리자원[27],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28]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으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습하는 전공 관련 개념을 반영한 여러 변수를 심리적 변수, 태도 및 인지적 변수, 행동적 변수로 나누고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간호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와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으로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선택동기, 인지·태도적 변수인 전공만족도, 행동적 변수인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심리적, 인지·태도적 변인인 간호전문직관,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행동적 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서 차이와 영향 등을 파악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취업준비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취업준비 프로그램 실행은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자와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자신이 인식한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들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들 중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8]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예측변수 9개(일반적 특성 변수 6개,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설문지 조사 평균 응답률 60%[29]를 고려하여 275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거된 221명의 설문지(본 연구의 응답률 80.4%) 중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13부를 제외하고

총 208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에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였다(SH-IRB 2018-23).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았고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절차, 연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모든 자료는 비밀을 보장하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취득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등을 설명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전공선택동기

Jung[30], Lee[31]의 연구도구를 기초로 Han[9]이 개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8문항은 개인적 동기(적성/흥미/재능/장래직업) 4문항과 사회적 동기(전공 인기도/사회적 인식/주변의 권유/성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Han[9]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Cronbach's  $\alpha = .86$ , 사회적 동기 Cronbach's  $\alpha = .62$  이었고, 본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Cronbach's  $\alpha = .88$ , 사회적 동기 Cronbach's  $\alpha = .66$  이었다.

### 2.4.2 전공만족도

Yang, Park과 Kim[32]이 개발한 측정도구에서 ‘학과’라는 용어를 ‘전공’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6문항(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전공 교과목은 나와 잘 맞다./전공만족/다닐만한 전공/배울 가치있는 전공교재/전공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더 큼을 의미한다. Yang, Park과 Kim[32]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2.4.3 간호전문직관

Yeun, Kwon과 Ahn[16]이 개발한 도구를 Han, Kim과 Yun[33]이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은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Kwon과 Ahn[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Han, Kim과 Yun[3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2.4.4 취업준비행동

Han[9]이 개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총 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이력서에 포함시킬 경력준비/어학공부/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전공관련 특강/학원수강)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Han[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6$ 이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학년, 부모의 월소득, 성적, 취업준비기간)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취업준비행동,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은 단계선택 방식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연령은 25세 이하가 182명(87.5%), 여학생이 186명(8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학년이 전체의 119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8)

Variable	Category	N(%)
		Mean±SD
Age	20~25	182(87.5)
	26~29	22(10.6)
	> 30	4(1.9)
	Average	23.49±2.8
Gender	Female	186(89.4)
	Male	22(10.6)
Grade	Junior	89(42.8)
	Senior	119(57.2)
Monthly income (won)	<200 ten thousand	20(9.6)
	200~400 ten thousand	73(35.1)
	>400 ten thousand	114(54.8)
	nonresponse	1(0.5)
GPA	<3.0	10(4.8)
	3.0 ~ 3.5	94(45.2)
	3.5 ~ 4.0	84(40.4)
	>4.0	20(9.6)
career Preparation Period	Not ready	49(23.6)
	<6 months	65(31.3)
	6~12 months	37(17.8)
	1~2 years	20(9.6)
	>2 years	8(3.8)
	start in a minute	29(13.9)

GPA= grade point average

(57.2%)로 3학년 학생 89명(42.8%)보다 조금 많았다. 부모님의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114명(54.8%), 200만원~400만원이 73명(35.1%), 200만원 미만인 20명(9.6%), 미응답자가 1명(0.5%)순이었다. 학교 성적은 평점 3.0~3.5이 94명(45.2%), 평점 3.5~4.0이 84명(40.4%), 평점 4.0이상이 20명(9.6%), 평점 3.0미만이 10명(4.8%)순이었다. 취업준비활동의 기간은 6개월 미

만이 65명(31.3%), 전혀 준비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49명(23.6%), 6~12개월이 37명(17.8%),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경우가 29명(13.9%), 1~2년이 20명(9.6%), 2년 이상이 8명(3.8%) 순이었다(Table 1).

### 3.2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

전공선택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51(±0.59)이며 하부영역인 개인적 동기는 평균 3.44(±0.86), 사회적 동기는 평균 3.58(±0.74)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1(±0.66)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67(±0.46)이었다. 하부영역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83(±0.52)이고, 사회적 인식은 평균 3.26(±0.72)이고, 간호의 전문성은 평균 3.79(±0.63)이고, 간호계의 역할은 평균 3.81(±0.67)이고, 간호의 독자성은 평균 3.87(±1.08)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2.74(±0.70)이었다(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

대상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성적( $F=5.67, p=.004$ )과 취업준비기간( $F=22.97,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 학년, 성별, 월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2.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N=208)

Variable	Domain	Mean±SD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tal	3.51±0.59
	Personal motivation	3.44±0.86
	Social motivation	3.58±0.74
Major satisfaction	Total	3.71±0.66
Nursing profession	Total	3.67±0.46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item No. 1,2,3,4,5,6)	3.83±0.52
	Social awareness(item No. 7,8,9,10,11)	3.26±0.72
	Professionalism of nursing(item No. 12,13,14)	3.79±0.63
	The role of nursing service(item No. 15,16)	3.81±0.67
	Originality of nursing(item No. 17,18)	3.87±1.0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tal	2.74±0.70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	Category	Mean±SD	F(p)	Scheffe
GPA	Low(a)	11.60±4.25	5.67 (.004)	c)a, b
	Middle(b)	13.10±3.27		
	High(c)	14.41±3.44		
career Preparation Period	None(a)	11.79±3.16	22.97 (.000)	a(b, c
	<1 year(b)	14.65±3.21		
	>1 year(c)	15.43±2.92		

GPA= grade point average

### 3.4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 $r=.153, p<.05$ ), 간호전문직관( $r=.189, p<.01$ )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선택동기는 전공만족도( $r=.514, p<.01$ ), 간호전문직관( $r=.393, p<.01$ )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 $r=.479, p<.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08)

	Job preparation behavior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
Job preparation behavior	1			
Major selection motivation	.105	1		
Major satisfaction	.153*	.514**	1	
Nursing profession	.189**	.393**	.479**	1

\* $p<.05$ , \*\*  $p<.01$

### 3.5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일반적 특성(성적, 취업준비기간),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

한 결과, Durbin watson값은 2.029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815~0.972로 1 이하이면서 분산팽창지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23~1.226으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준비 기간더미( $\beta=.396, \beta=.310, p<.001$ ), 성적더미( $\beta=.174, p=.006$ ), 간호전문직관( $\beta=.125, p=.046$ ) 등이었다. 본 회귀모델은 수정된  $R^2$ 값이 .215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성적, 취업준비기간)과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21.5%의 설명력을 지녔다(Table 5).

Table 5. Analysis of the impa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N=208)

Predictive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7.822	1.741		4.494	<.001
Job Preparation Period 1	2.751	0.465	0.396	5.915	<.001
Job Preparation Period 2	3.153	0.693	0.310	4.548	<.001
GPA	1.205	0.432	0.174	2.789	.006
Nursing profession	0.053	0.026	0.125	2.006	.046

F=15.16,  $p<.001$ ,  $R^2=.230$ , Adj  $R^2=.215$ .

Job Preparation Period 1 = dummy variable, 0: none or > 1 year, 1: <1 year

Job Preparation Period 2 = dummy variable, 0: none or < 1 year, 1: >1 year

GPA = dummy variable, 0: low or middle GPA, 1: high GPA  
GPA= grade point average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증진시켜 간호학과 미 취업자수와 간호사 조기 이직률을 낮추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성적과 취업준비기간 등은 취업준비행동에 차이와 영향을 미쳤다. 성적이 높은 그룹의 학생들이 성적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그룹의 학생보다 취업준비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국과 한국 대학생 간의 문화연구를 시행한 선행연구[34]의 결과와 동일하다. [34]에서는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모두 성적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성적이 낮은 그룹은 자기 주도적 취업준비행동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이들을 위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취업준비기간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와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부모의 월소득은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23,25]과 상이하였다. 선행연구[23]에서는 연령이 25세 이상인 군이 24세 이하인 군에 비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t=7.19, p=.001$ ), 선행연구[25]에서는 연령이 21세, 22세, 23세, 24세 이상순으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43.77, p<.001$ ). 본 연구와 선행연구가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연령 구분을 20~25세, 26~29세, 30세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25세 사이의 취업준비행동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사료된다.

학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23,35]와 상이하였다. 선행연구[23]에서는 1, 2학년, 3학년, 4학년 순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14.33, p<.001$ ). 선행연구[36]에서는 1, 2학년보다 3학년이 취업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10.74, p<.001$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반복 연구해 봐야 한다고 사료된다. 부모의 월소득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25]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선택동기 연구도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35]와 본 연구를 비교하면, 선행연구[35]의 대상자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과 달랐는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보다 높은 점은 선

행연구와 동일하였으나 전공선택동기 점수가 선행연구보다 더 높아 간호대학생이 치위생학과 대학생보다 전공선택동기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주된 전공선택동기가 취업률, 사회적 인식, 주변의 권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 보아 전공 선택시 개인적 선택동기(흥미, 적성, 장래직업, 재능)를 높이도록 대학 입시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진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치위생학과 대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점은 대학입시에서 간호학과의 입시경쟁률 및 커트라인이 치위생학과 보다 더 높은 입시실태의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22,36,37]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전공선택동기가 직접적으로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공선택동기가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평균 3.71( $\pm 0.66$ )점이었다. 2019년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3, 4학년 208명의 전공만족도 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결과를 2010년 4개 대학교 전 학년 대상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39]결과와 비교할 때, 선행연구[38]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4개 대학교 각각 3.49~3.62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 점수가 약간 높았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간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1]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9년 사이에 더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연구도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3, 4학년을 조사한 최근 연구는 없어서 본 연구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32, 39-42]과는 상이하였다. 선행 연구[32,39]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선행 연구[40,41]에서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선행연구[42]에서는 전공만족 하위영역 4가지(교과만족, 인식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중 2가지(교과만족, 인식만족)만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3.67( $\pm 0.46$ )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21,26,27]의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사람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긍지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강한 희망을 품은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일수록 고 난이도의 방대한 양의 간호학과 학업 수행에 따른 고통을 잘 견뎌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사람은 취업준비행동을 못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고 성적이 우수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긴 간호대학생이 취업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한 학생을 선별할 때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성적이 보통 이하이고, 취업준비기간이 짧은 학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선별된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간호전문직관을 개선시키고 성적(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준비를 조기 시작시키기 위해 저학년부처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취업준비기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3, 4학년 만이 아니라 1, 2학년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3, 4학년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른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연구대상자의 학년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어떤 매개요인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시행되었던 취업준비행동을 간호학과 3, 4학년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간호학과 3, 4학년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전문직관, 성적, 취업준비기간 등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을 하도록 우선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성적이 중간이거나 낮고, 취업준비기간이 거의 없거나 짧은 학생들이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취업준비행동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취업준비행동에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적이 높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수록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지도를 할 때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성적이 보통 정도 이거나 낮으며, 취업준비기간이 짧은 학생을 우선 선별하여,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키고, 성적(간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취업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Reference

- [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graduat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tax DB connection Job Statistics Survey [Interne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Educational statistics database, c2018[cited 2018 10. 28], Available from: <https://kess.keedi.re.kr/ksearch> (accessed April 10, 2019)
- [2] Y. S. Kim,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34, no.3, pp.67-95, 2012.
- [3]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1, pp.83-91, 2010.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4]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olym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1-25, 2008.
- [5]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83-91, 2010.
- [6]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1, pp.62-71, 2011.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7] Y. J. Son, E. Y. Choi, Y. A.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8, No.4, pp.345-351, 2010.
- [8]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 [9]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2013
- [10]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3.
- [11] E. Y. Oh, K. S. Kim, "The relationship of airline service major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rdo Economics Journal*, Vol.21, No.4, pp.59-73, 2018.  
DOI:<https://dx.doi.org/10.20436/OEJ.21.4.059>
- [12]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p.261,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13] R. Veenvhoven, *Happiness in nations :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Rotterdam : Erasmus University Press, 1993. pp.1946-1992.
- [14] Y. J. Song, G. P. Ch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4, pp.355-374, 2015.
- [15] K. S. Bang, J. K.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88-97, 2008.  
DOI:<https://dx.doi.org/10.5977/JKASNE.2008.14.1.088>
- [16]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 [17] D. 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2, No. 2, pp.201-204, 2000.
- [18] G. M. Hampton, D. L. Hampton,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7, No.9, pp.1042-1053, 2004.  
DOI:[https://dx.doi.org/10.1016/S0148-2963\(02\)00356-9](https://dx.doi.org/10.1016/S0148-2963(02)00356-9)
- [19]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2014.  
DOI:<https://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20]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62-71, 2011.  
DOI:<https://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21] S. H. Han,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7, pp.379-389, 2018.
- [22] J. I. Choi, T. Y. Han, Y. H. Le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3, No.5, pp.113-126, 2014.
- [23]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44-352, 2016.  
DOI:<https://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24] H. J. Choi, J. 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8, No.3, pp.21-33, 2018.
- [25] S. Y. Yi, P. S. Soung, Y. K.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velopmen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1, No.4, pp.49-68, 2017.
- [26] J. A. Seong, S. Y. Bang, S. Y.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2, no.2, pp.29-38, 2012.
- [27] C. H. Woo,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General Academic Conferen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orea, pp.287-288, 2016.
- [28]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4, pp.21-36, 2017.  
DOI:<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14.21>

- [29] P. Johnson, J. S. Wislar, "Response rates and nonresponse errors in surveys", *JAMA*, Vol.307, No.17, pp.1805-1806, 2012.  
DOI:<https://dx.doi.org/10.1001/jama.2012.3532>
- [30] J. B. Yeon,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do, Korea, 2010.
- [31] J. H. Lee, "A Study on job selection reasons and choice motives of major for college students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in Bus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9. No.2, pp.69-85, 2011.
- [32]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4, pp.21-36, 2017.  
DOI:<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14.21>
- [33]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DOI:<https://dx.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34] K. H. Choia, D. Y. Kim, "A cross cultural study of antece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Vol.13, No.-, pp.19-32, 2013.  
DOI:<https://dx.doi.org/10.1016/j.jhlste.2013.04.001>
- [35]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42, No.4, pp.181-186, 2018.  
DOI:<https://dx.doi.org/10.11149/jkaoh.2018.42.4.181>
- [36] H. J. Lee, Y. K. Lee,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es of dance major students on vocational value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5, No.1, pp.1-12, 2018.
- [37] H. J.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esthetic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1, No 6, pp.1212-1223, 2015.
- [38] M. H. Yang, M. J. Park, H. J. Kim,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i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ournal of Vacational Education Reserch*, Vol.29, No.2, pp.137-156, 2010.
- [39] H. J.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e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esthetic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1, No.6, pp.1212-1223, 2015.
- [40] J. H. Lee, S. H. Kim,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Institute*, Vol.14, No.2, pp.77-96, 2018.
- [41] B. R. Choi, H. S. M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dergradua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2, pp.939-955, 2018.  
DOI:<https://dx.doi.org/10.22251/jlcci.2018.18.22.939>
- [42] M. J. Chung,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12, No.1, pp.81-104, 2014.

황 성 우(Sung-Woo Hwang)

[정회원]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인력정책, 치매케어

차 현 수(Hyun-Su Cha)

[정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과 (보건학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7년 3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완대체요법, 대학생